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誠金전달식

관인초·노곡초·이동중·도평초 학생들에게 전달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이 연말에 이어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에는 이동면과 화현면 소재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과 환자 등에게 쌀을 전달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과 안병호 자문위원회 총무와 권귀자 주부명예기자등이 함께 전달했다. 이동면 장암5리에 사는 김영임 할머니와 이동면 장암리 이재순 할머니, 이동면 노곡리 김용래 할머니, 이동면 장암5리 김재성씨, 이은순씨, 이동면 노곡리 장영근, 조정화, 방기철씨와 화현면 화현5리에 홀로 사시는 이복순 할머니와 화현면 승진아파트 앞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혼

자 외롭게 살고 있는 김용남 할아버지께 쌀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또 지난 8일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과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안병호 총무 등은 관인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총 20명의 학생들에게 정성어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겨울방학중인 관계로 대부분 해당 학교 교감 등에게 전달된 이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서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모아진 정성어린 성금을 전달하면서 학생들에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인초등학교 강재일 교장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으로 아파트 앞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혼

중에는 급식비도 제대로 납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줄 학생들이 이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동면 소재 노곡초등학교 홍석표 교장은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다"며 "학생들에게 잘 전달 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이동중학교 최영식 교감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중학교 최영식 교감은 "겨울 방학중이기 때문에 오늘 해당 학생이 3명만 참석했다"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오늘 포천신문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전달된 귀중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도평초등학교 이일영 교장은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급식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 직접 가정방문을 해보니 정말 딱한 사정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 같은 학생들을 돕기 위한 포천신문의 노력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는 권귀자 주부명예기자가 동행하여 이동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포천신문사는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어려운 학생들은 물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역의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포천신문사는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어려운 학생들은 물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는 031-542-15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관인초등학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식(좌로부터 김선규 교감, 최호열 발행인, 강재일 교장, 안병호 자문위원회 총무, 김진숙 주부명예기자.)



노곡초등학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식(좌로부터 안병호 자문위원회 총무, 최호열 발행인, 홍석표 교장, 권귀자 주부명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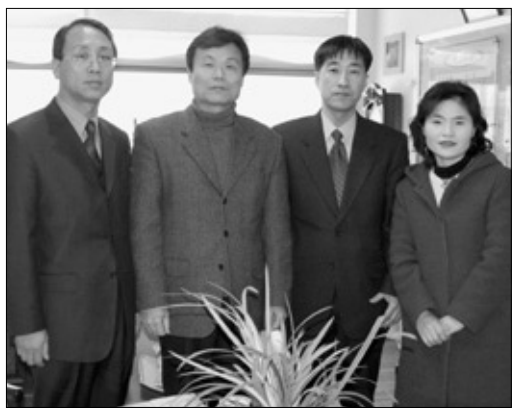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과 김영일 할머니께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과 이재순 할머니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중학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식(좌로부터 안병호 자문위원회 총무, 손정은 학생, 김지영 학생, 최호열 발행인, 김대현 학생.)



도평초등학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식(좌로부터 최호열 발행인, 이일영 교장, 안병호 자문위원회 총무, 권귀자 주부명예기자.)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과 김용래 할머니께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자문위원회 안병호 총무가 김재성씨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과 이은순씨를 위해 동네주민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과 조정화 씨께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자문위원회 안병호 총무가 방기철씨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과 이복순 할머니께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자문위원회 안병호 총무가 김용남 할아버지께 쌀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자문위원회 안병호 총무가 김용남 할아버지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생명과학 시대를 연다 ⑤

인간 염색체에 숨겨진 비밀을 푼다

-유전체 의학 연구에 대하여-

현대 의학은 컴퓨터, 나노기술, 정밀 화학 및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염기서열, 즉 DNA에 대한 정보가 알려짐으로써 유전체 의학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준비를 종종 이야기한다.

유전체 의학 연구는 신대륙 탐험

현재까지 유전체의 대부분 이해의 정도는 단일 유전자 변형에 의한 희귀한 유전병에 많이 국한되어 왔으나 유전성 질환의 연구 범위는 최근 그 개념이 폭넓게 확대되어, 성인병, 불임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과거 그 유전적 성향은 인지되나 그 자체가 미미하며, 특이 유전자를 찾지 못한 경우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환경적 변화 요인에 의해 쉽게 그 병에 도달되는 인체 질환 등은 그 유전성을 입증하기 힘들고 위험 군을 진단하기 힘들었다. 최근 이러한 경우 관련 유전자들의 단일 염기 변화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으로 이의 연구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유전체 의학 연구는 21세기 타학문 분야 보다 더욱 많은 잠재력을 가지며 당장 인류의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관련 기술이 발달되어 그 결실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시점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과거 신대륙을 탐험하여 정복하듯이 경쟁적으로 바이오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도 올해를 생명공학의 해로 선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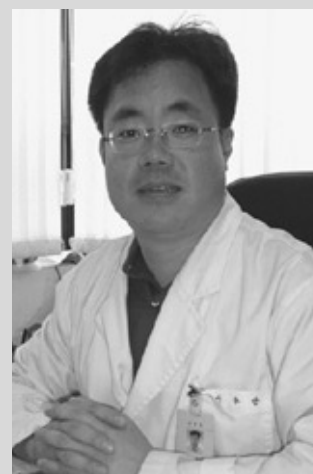
유전자 변화, 누가 먼저 찾아내나

이러한 유전체 연구의 방법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방법의 공통적인 특성은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많은 유전자의 변화를 찾아내고 각각의 유전자의 기능, 그리고 특히 질환과의 상관 관계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유전자 적중 (Knock-Out) 연구 및 마이크로 어레이(Micro-array, DNA chip) 분석 기술은 현재 효과적인 유전체 의학 연구의 대표적 방법으로 통하며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의 기능 산물인 단백질들의 전체 변화를 연구하여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는 단백질 체 연구 (Proteomics), 대사 체계의 변화를 연구하는 대사체 (Metabolomics) 등, 최신의학의 연구는 과거 미시적 연구에서 거시적 연구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모든 생물 분야에서 응용되고, 유전자의 기능과 인체 질환과의 관계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의 희망, 유전체 의학 연구

유전체 의학 연구의 대상은 과거 특정 유전 질환자의 특정 유전자 분석에서 벗어나 일반인에게 그 연구의 결과가 한 걸음



이수만 교수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차병원 유전체연구실장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약리 유전체 학은 (Pharmacogenomics) 대표적으로 그 연구 성과가 일반인에게 바로 적용될 연구 분야이다. 기존에 약물에 대하여 단지 부작용으로만 알려진 소수 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 유전체 연구가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DNA 지문 관련 분야 등은 이미 여론의 과정을 거쳐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유전체 의학 연구는 논리적 또한 기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21세기의 희망적 연구이며, 특히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 분야로서,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역시 많은 보람과 성과를 현재 가져다 주고 있다.

카메라고발 위험 속에 방치된 보건소사거리



보건소사거리에서 불법으로 도로 공사구간에 진입하는 차량들.

최근 포천시 신읍동 보건소사거리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대책미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청 도시과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소사거리~신북면 가채리 구간(포천 중로-2호선)은 9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한신아파트 입구의 토지협상 등의 문제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며 "공사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미개통구간에 임시로 차량을 출입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문제로 경찰과도 협의해 봤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사거리 구간을 출입하는 차량들은 불편하더라도 법을 준수해 무단 교행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사거리~가채리간 도로는 오는 6월 이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금호 건강랜드 사우나

목욕비 3,000원 대폭인하

연예인 총출연 및 주부노래자랑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6층 이벤트홀에서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5층] 열음방, 옥돌자수정불가마, 불한증막, 이용원, 급냉탕, 비취찜질방, 소금불가마
[6층] 헬스, 에어로빅, 한식당, 스넥, 골프연습장, PC방, 소금방



포천시 신읍동 43-18 예원프라자 5,6층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Tel. 031)536-7945

H.P.011-399-0794 (대표 방선희)